

다연산업

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에 소개



2007년도 대전국제 축산 박람회 해외 홍보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진행 중인 '해외 저널리스트 초청 프로그램'이 4개국 8명의 저널리스트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에 선정된 5개 업체 중 낙농기자재 전문업체인 다연산업(대표이사 금재호)이 포함되어 프로그램 2일차인 지난 6월 19일에 다연산업을 방문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다연산업 본사가 아닌 늘매목장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다연산업 금재호 사장은 저널리스트들과 다연산업 제품(축분건조기, 급수기 환기시스템 등)이 설치된 목장 구석구석을 돌며 제품마다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후 다연산업 본사로 이동, 다연산업의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연회를 가졌으며, 다연산업 제품의 우수성에 저널리스트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했다.

싱가폴에서 온 이피드 앤 라이브스톡 매거진의 다니엘 가지는 "다연산업의 제품이 낙농목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젖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한국의 낙농산업에 대해 다시금 느끼게 만든 기회였다."고 말했다.

CJ(주)

사료BU TMR 사업 합동조인식 거행



CJ(주) 사료BU(부사장 이병하)는 TMR 신제품 네이팜 출시와 함께 지난 6월 21일 인천 중부사업장에서 3개 영농조합법인 대표(평택미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각수, 다산농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안성기, 음성낙농연합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순영)와 함께 TMR 사업 합동조인식을 거행했다.

이날 이병하 부사장은 개회사에서 "낙농시장의 메가트랜드인 TMR사료 사업을 신뢰성 있는 TMR공장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며, 고객에게 믿음과 수익을 줄 수 있는 사료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무진 축우PM은 "Global in CJ"라는 발표를 통해 CJ(주) 사료BU

의 비전과 미션공유를 통해 금번 조인식으로 파트너가 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행사의 주최인 박영준 중부ISM은 “한국의 TMR사업과 CJ FEED의 TMR비전”이라는 제목으로 TMR역사와 국내시장 특성, 네이팜 신제품 소개 등 심도있는 내용발표와 함께 “네이팜은 젓소를 위한 TMR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제품 성공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에 출시된 CJ 네이팜은 일반TMR 사료의 문제점인 가격변동에 따른 원료변화(품질), 입자도, 유량 및 번식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한 획기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CJ 네이팜은 최초 설계시부터 자가배합TMR의 장점을 살리고 고능력우에 맞는 에너지와 단백질 조화와 함께 장건초함량 관리에 중점을 뒀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CJ 네이팜 급여시 농가는 균일한 TMR품질로 인한 젓소의 경제수명 연장, 무포장차로 급여관리의 편리함, 자가배합사료 대비 경제적 이득 등 삼박자의 효과를 얻는게 특징이다.

이날 참석한 CJ 관계자들은 “최고의 품질의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앞으로 닥쳐올 FTA의 파고에 대해 ‘CJ는 축산농민의 든든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토종1위 업체인 CJ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CJ(주)군산공장 지원팀장 김성철님 국무총리표창

“생각지도 않은 큰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끄 저와 함께 해주신 CJ(주) 군산공장 김성호사업부장님을 비롯한 전사우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사협력증진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생산성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CJ(주)군산공장 김성철 지원팀장(45)의 인사말이다.

김팀장은 인사, 노무관리 전문가로서 지난 2001년 노동부장관표창과 2003년 경찰청장상, 2006년 전라북도지사표창, 2006년 신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특히 노사협의회 대표와 노사, 인사담당 등 관련 업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 노사 문화 정착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주)선진

이인혁 회장, '자랑스런 중앙인 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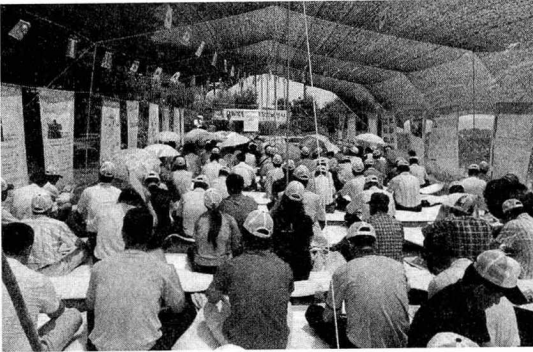
(주)선진 (대표 이범권)의 이인혁 회장이 중앙고 개교 99주년을 맞아 중앙교우회에서 모교를 빛낸 교우들에게 주는 '자랑스런 중앙인 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중앙인 상'은 1988년 중앙고 개교 80주년 기념일부터 시작, 평생 각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이루고 모교의 명예를 높인 훌륭한 교우들에게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에 재계부문 본상을 수상한 이인혁 회장은 1973년 (주)선진을 세운 창업주이다. 1997년 필리핀 사료공장을 시작으로 베트남,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앞장섰으며 고급 브랜드 돈육인 크린포크와 양돈계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등 탁월한 기업가 정신과 미래를 조망하는 직관력을 높게 평가 받아 수상하게 됐다.

우성사료(주)

낙농 우수농장의 날 행사 개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6월 14일 낙농체험 목장으로 유명한 충남 천안 소재 대림목장(대표 장해청)에서 우수목장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낙농목장의 성공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FTA 체결 등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림목장의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 이날 전국에서 150여명의 낙농인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대림목장은 현재 착유두수 140두, 총 276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두당 산유량 32.4kg, 분만간격 415일, 유지율 4.2%, 유단백 3.2%, 공태일 142일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일규모의 전국 평균(2007년 4월 기준) 유량 30.4kg, 유지율 3.78%, 유단백 3.06%, 분만간격 444일, 공태일수 171일 등과 비교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성사료 변훈중 축우DM은 대림목장의 사양관리 포인트로 세밀한 관찰, 철저한 기록·TMR 관리, 우군 건강 향상, 조사료 위주의 육성우 사양,

우성사료 착유 프로그램 적용 등을 제시하고, 현재 유방염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없을 정도로 평소에 목장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낙농목장 생존 전략으로 반추위 안정화, 건물 섭취량 증가, BCS 개선, 번식성적 개선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우성사료의 오웰빙이 해답이라고 역설했다.

오웰빙은 젖소의 5대 기관의 웰빙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수명을 연장해 생애 총 산유량 5만kg을 달성하기 위해 탄생했다. 에너지원의 공급과 이용효율 증진으로 체지방 동원을 최소화하고, 동원된 체지방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완전 산화되어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켜, 간 조직 내에 중성지방의 축적을 감소시켜 지방간을 예방한다.

대림목장의 가업을 잇고 있는 장성근 수의사는 “우성사료를 20년 넘게 사용하면서 한결 같은 품질에 ‘우리 목장에 잘 맞는 사료’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성사료는 아버지에 이어 저에게도 좋은 사업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목장은 장해청 대표가 1977년 송아지 3두로 시작해 현재 4만여평의 목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2005년부터 낙농체험 목장을 시작해 도시민들에게 자연의 세계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축산업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대림목장은 또한 경제산차 연장(3산), 원유품질 고급화, 초산 신드롬 극복 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